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혐의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보 도 자 료

2013. 9. 24.(화)

공보담당관 제3차장검사 박정식
전화 02 530 4304 / 팩스 02 530 4220

자료문의 : 특수1부장 검사실
주책임자 : 부장검사 여환섭

제 목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사건 수사결과

I 11개 건설사 및 전·현직 임원 22명 기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3조 8,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 보(淤) 공사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11개 건설사 및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하였음 <피의자 명단 별첨>
※ 죄명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입찰방해죄, 11개 건설사는 건산업 상의 양벌규정 적용
- 2013. 5. 15. 총 25개 건설사 및 설계업체에 대한 일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약 4개월에 걸쳐 연인원 600여명을 조사하는 등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여 고질적이고 구조화된 입찰 담합 실체를 규명하였음

II 입찰 담합 경과 및 구조

- 상위 6개 대형건설사 간의 입찰 담합 합의
 - A, B, C, D, E, F 등 6개 건설사는 2008. 12.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수립에 공식 착수한 직후부터 막후 협상을 통해 서로 경쟁없이 공사 물량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 일정한 공사 지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들까지 규합하여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함으로써 입찰경쟁 가능성을 사전 봉쇄한 상태에서,
 - 6개사 임원들 간의 회합과 연락을 통해, 2009. 2~6월 발주된 16개 보 공사 에서 위 6개사가 각각 2개씩, G와 H가 1개씩 나누어 8개사가 14개 공구를 배분하였음

② 들러리 설계와 가격조작을 통한 입찰 담합 합의 실현

-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들은 배분된 공구에서 경쟁없이 낙찰을 받기 위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법에 합의하고,
- 들러리로 응찰한 건설사들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턴키 입찰에서 설계점수를 일부러 저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인 속칭 “B설계”를 하고, 투찰가격은 낙찰이 예정된 건설사의 요구대로 써 줌으로써 입찰 담합 합의를 실현하였음

※ 입찰에서 탈락하기 위해 일부러 낙찰이 예정된 건설사의 설계(“A설계”)보다 저급한 수준으로 만드는 설계라는 의미에서 “B설계라고 부름

③ 다른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의 투찰가격 담합

-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공사(낙찰금액 2,105억원), 영주다목적댐 공사(낙찰금액 2,214억원), 보현산다목적댐 공사(낙찰금액 1,568억원) 등 2009~2010년 발주된 다른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서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응찰가격의 차이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서로 투찰가격을 맞춰 입찰하였음

<담합을 통한 입찰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 전체 공사 내역 별첨>

※ 입찰담합 구조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된 『참고자료』 참조

III 수사의 성과 및 의의

■ 들러리 입찰 혐의 추가 확인 등 입찰 담합의 전체 내용 규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였음
- 검찰 수사에서는 그 외에 상위 6개사들과 경쟁 입찰한 것처럼 보였던 I, J, K 등 일부 건설사들도 사전 조율을 통해 설계자료를 보여주고 상위 6개사의 요구대로 투찰가격을 맞춰 주는 등으로 들러리 입찰을 해 준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임원들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였음
- 아울러 그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공사, 영주다목적댐 공사, 보현산다목적댐 공사 등에서도 상위 6개사들이 가격점수가 전혀 변별력을 가질 수 없도록 투찰가격에 사전 합의함으로써 가격경쟁을 무산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가격조작 혐의를 적용하였음

■ **턴키 입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구조화된 담합 실태 확인**

- 6개 대형 건설사들은 '2007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입찰 담합을 하였음
- 대형 건설사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보 공사에서도 도급순위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지분율을 정해 놓고 정부의 공사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입수하는 등으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였으며,
- 당국의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일련의 입찰 담합 과정을 조직적으로 주도하였음
 - ※ 들러리 설계를 은폐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 협의하고, 사전 담합이 된 공구의 입찰에서는 예외없이 낙찰 예정 건설사가 마지막으로 투찰가격을 제출함
-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이 다른 공사에서도 “자율조정,” “정보교환” 등을 명분으로 담합을 시도해 온 상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중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은, 이처럼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구조화된 담합 관행이 대형 국책사업에 그대로 적용된 사안임

■ **들러리 입찰 비용으로 지급된 설계보상비 환수 조치 통보**

- 4대강 살리기 보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대부분 건설사들은 사전 약속에 따라 발주처가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들에게 지급해 주는 ‘설계보상비’에 맞춰 B설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 예를 들어, 2위 업체에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15억원이라면 15억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B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임
- 담합 협의를 확인된 14개 보 공사에서 지급된 설계보상비의 총액은 293억원에 이르는데, 결국 턱키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들의 설계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보다 많은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설계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국가 예산이 들러리 입찰 비용으로 낭비된 것임
- 검찰은 향후 담합 협의를 확정되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설계보상비 환수 조치를 검토하도록 발주처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 ※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02-12, 2009. 4. 8.) 등

■ 입찰 담합 가담자를 엄벌하여 담합 관행 근절 계기 마련

-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턴키공사에서 검찰이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수사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고, 특히 대형 건설사 임원을 담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은 **1998년 이후 15년만의 일임**
- 이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토목사업에서, 경쟁질서의 근간에 해당하는 입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조정” 등 담합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되풀이 되어온 관행적 변명이 더 이상 관용될 수 없고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임

IV 관련 사건 수사상황 및 향후 계획

- 검찰은 그간 담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단서와 고발 사건 등을 기초로,
 - 뇌물수수 혐의로 2013. 9. 6. R공사 사장 ㄱ'OO(66세, 2008년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TF팀장)를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고(구속집행정지 중),
 - 2007. 12월~2011. 9월 설계업체 S로부터 총 **3,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단법인 T' 사무총장 ㄷ'OO(55세, 前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을 금일 불구속기소하였으며,
 - 2009. 5월~7월 **23억원의 비자금 조성하여 횡령**하고 서울시 턴키공사 심의위원 3명에게 2억 5,500만원을 공여(뇌물공여 및 배임증재)한 혐의로 2013. 9. 2. C 토목사업본부장 ㅋ'OO(58세)을 구속기소하고,
 -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였던 설계사인 S가 매년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월~2013. 3월 기간 중 **4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및 회계 분식** 혐의로 S 회장 ㅌ'OO(69세)을 **2013. 8. 26. 구속기소**하였음
-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다른 턴키공사에 대한 입찰 담합 혐의 등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히 수사할 계획임

첨부)

기소 대상자

[개인]

순번	건설사	성명	직책
1	A	ㄱOO(63세)	前 대표이사
2	A	ㄴOO(구속, 62세)	前 토목환경사업본부장
3	A	ㄷOO(구속, 61세)	前 토목환경사업본부 전무
4	A	ㄹOO(61세)	前 국내영업본부장
5	B	ㅁOO(64세)	前 토목사업본부장
6	B	ㅂOO(구속, 58세)	前 토목사업본부 국내토목사업부장
7	B	ㅅOO(구속, 57세)	前 개발사업본부 임원
8	C	ㅇOO(61세)	前 대표이사
9	C	ㅈOO(61세)	前 토목사업본부장
10	D	ㅊOO(59세)	前 토목사업본부장
11	D	ㅋOO(56세)	前 수주영업실 상무 現 수주영업실장
12	E	ㅌOO(구속, 58세)	前 토목사업본부장 現 안전총괄 부사장
13	E	ㅍOO(50세)	前 국내영업본부 수주영업1팀장 現 국내영업본부 상무
14	F	ㅎOO(구속, 55세)	前 토목영업본부장 現 토목인프라 및 국내영업 부문장
15	F	ㄱ'OO(53세)	現 국내영업본부장
16	G	ㄴ'OO(62세)	前 토목환경사업본부 본부장
17	G	ㄷ'OO(54세)	前 토목환경사업본부 1그룹장 現 국내영업실 실장
18	H	ㄹ'OO(58세)	前 토목사업본부장

19	H	□'OO(52세)	前 토목사업본부 상무보 現 토목사업본부 상무
20	I	ㅂ'OO(59세)	前 토목영업팀장
21	J	ㅅ'OO(55세)	前 전략수주팀 상무 現 국내영업본부장
22	K	ㅇ'OO(52세)	前 영업본부 상무보 現 토목사업본부 상무

※ A와 C는 CEO(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확보되어 CEO까지 기소하고, 기타 업체는 입찰 담합에 CEO가 관여한 증거가 없어 책임이 인정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기소하였음

[11개 법인]

A, B, C, D, E, F, G, H, I, J, K社

첨부)

입찰담합 혐의 확인 공사내역

[보 공사 내역]

연번	공사명(보)	발주처	공고일	공사추정액 (백만원)	낙찰률 (%)	투찰금액 (백만원)	입찰업체(주간사)	비고
1	금강1공구 (금남보)	대전청	09.02.09.	134,400	89.751	120,625	C	
						125,193	F	
						127,479	B	
2	한강3공구 (이포보)	서울청	09.06.29.	344,300	91.853	316,250	D	
						326,740	I	
3	한강4공구 (여주보)	서울청	09.06.29.	315,600	94.490	298,210	B	
						305,501	L	
						297,169	C	
4	한강6공구 (강천보)	수자원공사	09.06.29.	288,119	93.202	268,532	A	
						267,377	M	
						271,117	F	
5	낙동강18공구 (함안보)	수자원공사	09.06.29.	320,792	94.456	303,006	E	
						302,995	N	
						301,180	B	
6	낙동강20공구 (함천보)	부산청	09.06.29.	264,229	93.973	248,303	F	
						254,513	O	
						261,000	K	
7	낙동강22공구 (달성보)	부산청	09.06.29.	368,562	91.800	338,340	A	
						349,397	P	
						336,497	M	
						346,080	F	
8	낙동강23공구 (강정보)	수자원공사	09.06.29.	317,770	91.318	290,180	D	
						285,929	J	
9	낙동강24공구 (칠곡보)	부산청	09.06.29.	384,715	99.320	382,100	C	
						379,900	N	
						376,400	E	
10	낙동강30공구 (구미보)	부산청	09.06.29.	196,673	90.900	178,776	G	
						186,450	C	
11	낙동강32공구 (낙단보)	부산청	09.06.29.	200,591	91.996	184,536	L	
						199,588	B	
						190,361	A	

연번	공사명(보)	발주처	공고일	공사추정액 (백만원)	낙찰률 (%)	투찰금액 (백만원)	입찰업체(주간사)	비고
12	낙동강33공구 (상주보)	부산청	09.06.29.	227,677	93.140	212,058	H	
						216,150	A	
13	금강6공구 (부여보)	대전청	09.06.29.	279,800	94.550	264,550	E	
						261,327	H	
14	금강7공구 (금강보)	대전청	09.06.29.	180,000	93.983	169,169	F	
						177,900	O	
						170,800	A	

[독 및 댐 공사 내역]

연번	공사명	발주처	공고일	공사추정액 (백만원)	낙찰률 (%)	투찰금액 (백만원)	입찰업체	비고
1	낙동강 하구독 배수문 증설	수자원공사	09.07.10	221,700	94.986	210,584	B	
						210,531	A	
						210,568	E	
2	영주다목적댐	수자원공사	09.07.10	233,545	94.813	221,430	B	
						221,366	C	
3	보현산다목적 댐	수자원공사	10.02.01	165,291	94.893	156,850	C	
						156,959	A	
						156,900	F	